

사물 인터넷 시대의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장원¹, 서동현^{2*}

¹동명대학교 복지경영학과 조교수, ²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박사 과정

The Effect of Academic Dropout Risk Factors on Depression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the Era of the Internet of Thing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al Support

Jang-Won Choi¹, Donghyun Seo^{2*}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Welfare Management at TongMyong University

²Ph. D Cours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Social Welfare Policy at Yons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IoT) 시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요인(부정적 생활태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부모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2기 6차년도(2024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 1,765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PROCESS Macro(Model 1)를 활용하여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요인인 부정적 생활태도는 우울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부모의 지지는 학업중단 위험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유의미하게 완화하는 조절효과를 보였다. 즉, 부모의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생활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악영향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완충 작용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디지털사회 속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우울 예방을 위해 가정 내 환경적 보호요인인 부모지지가 수행하는 실증적 역할을 강조하고, 향후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학업중단 위험요인, 우울, 부모지지, 조절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academic dropout risk factors (negative lifestyle attitudes) on depression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the Internet of Things (IoT) era an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al support in this relationship. Data were drawn from the 6th wave (2024) of the second-phas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nalyzing a sample of 1,765 9th-grade multicultural students using the SPSS PROCESS Macro (Model 1).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negative lifestyle attitudes, as key academic dropout risk factors, significantly increased depression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Second, parental support demonstrat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buffering the positive impact of dropout risk factors on depression. Specifically, higher levels of parental support progressively mitigated the negative influence of dropout risk factors on depressive symptoms. These findings provide empirical evidence highlighting the essential buffering role of parental support as a protective home environment factor for preventing depression and enhancing emotional stability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a smart technology environment.

Key Words : Multicultural Adolescents, Academic Dropout Risk Factors, Depression, Parental Support, Moderating Effect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교신저자 : 서동현(hyyy0129@naver.com)

접수일 2026년 07월 30일 수정일 2026년 08월 10일 심사완료일 2026년 08월 20일

1. 서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과 더불어 심리적, 사회적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이다[1]. 이 시기의 학생들은 가정과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야 하지만, 치열한 학업 경쟁과 다양한 환경적 스트레스로 인해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2].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4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생의 학업중단율은 1.1%로 나타났으며, 한 해 동안 정규 교육과정을 이탈한 학생 수는 5만 4천여 명에 달한다[3]. 특히 최근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며 전체 다문화 학생 수가 19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은 문화적 이질감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업중단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 세심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4].

이러한 학업중단 위기 경험은 단순히 교육과정의 이탈을 넘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치명적인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학업중단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은 잦은 학업 실패, 교사 및 또래와의 갈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경험하며, 이는 우울과 같은 심각한 내재화 문제로 직결된다[5,6]. 청소년의 학업중단위험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러한 위기감은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 요인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으며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위기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낙인감과 생활태도의 부정적 변화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고 우울감을 극대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5,7]. 즉, 학업중단 위험요인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인자이며, 우울로 이어지는 이 경로를 차단하거나 완충할 수 있는 긍정적 보호요인의 탐색이 시급하다.

청소년의 심리적 위기를 완화하고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다체계적 요인 중, 가장 1차적이고 핵심적인 보호요인은 바로 ‘가족’,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지지(Parental Support)’이다[8]. 부모지지는 청소년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위기 대처 능력을 기르는 데 필수적인 자원이다[9].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와 정서적 지지가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을 감소시키고 전인적인 웰니스(Wellness)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부모지지가 위기 청소년이 겪는 부정적 정서와 우울을 감소시키는 데 유의미

한 조절 역할을 수행함을 입증하였다[7]. 학업중단의 ‘위험요인(생활태도 등)’이 내재적 ‘우울’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경로에서, 부모지지가 이를 어떻게 조절하고 완충하는지(Moderating effect)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부모지지가 조절효과를 갖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심리적 웰니스를 증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통합을 돕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요인

청소년기는 단순한 질병의 부재를 넘어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영역에서의 통합적인 안녕 상태를 의미한다. 이 시기 웰니스를 위협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학업중단 위기이다. 학업중단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상실, 결석, 무기력한 생활태도 등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일련의 이탈 과정(Process of disengagement)으로 이해되어야 한다[10].

국내 학계에서도 학업중단 위험을 다차원적 요인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내적 특성인 ‘생활태도’는 학업중단 위험을 예측하는 핵심 선행변수로 다루어진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 학업에 대한 무기력함, 규칙 위반 등 부정적인 생활태도는 학교라는 사회적 기관에 대한 애착을 약화시킨다[11]. 최근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다문화 배경 등 다양한 환경적 취약성을 지닌 청소년들이 문화적 적응 스트레스와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부정적 생활태도를 형성할 위험이 높으며, 이는 곧 학업중단 위기로 직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12]. 즉, 청소년의 부정적 생활태도는 단순한 개인의 이탈이 아니라, 웰니스를 훼손하고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는 위험 신호로 해석되어야 한다.

2.2 학업중단 위험요인과 우울의 관계

우울(Depression)은 청소년기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내재화 문제이다. 청소년기의 우울은 성

인기와 달리 짜증, 무기력, 신체적 증상 등으로 은폐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조기 발견이 어려우며, 방치할 경우 극단적인 선택이나 만성적인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13]. 학업중단 위험요인과 우울 간의 관계는 Agnew[14]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부정적 자극(학업 실패, 부정적 생활태도로 인한 교사/또래와의 갈등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극심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으로 발현된다[14].

실증적 연구들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무기력한 생활태도를 보이는 청소년일수록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증가하여 우울 수준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하였다[15]. 또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청소년은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반 청소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심리적 고통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따라서 학업중단 위험을 높이는 생활태도는 청소년의 정서적 웰니스를 파괴하여 우울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3 부모지지의 개념과 조절(완충) 효과

부모지지(Parental Support)는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16].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가정은 청소년의 발달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이며,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는 청소년이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이다.

특히 본 연구의 핵심인 부모지지의 '조절효과'는 심리학의 '스트레스 완충 가설(Stress-Buffering Hypothesis)'에 근거한다. Cohen과 Wills[17]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스트레스 사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대처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그 사건이 병리적 결과(우울 등)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 이를 청소년의 학업중단 맥락에 적용한 국내외의 다수의 연구에서 부모지지의 보호 요인으로서의 역할이 입증되었다. 학업 스트레스나 학교생활 부적응이 심리적 위기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부정적 영향을 유의미하게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즉, 학업중단 위험요인이 존재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청소년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탄력성을 갖게 되어 우울감으로 깊이 빠

져드는 것을 방어할 수 있다. 종합하면, 청소년의 진정한 웰니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위험요인이 우울을 유발하는 병리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동시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부모지지의 조절(완충)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3.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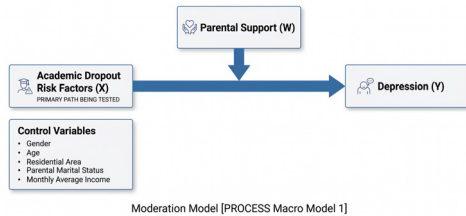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 청소년패널조사(MAPS)」 2기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MAPS 2기는 국내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 발달 추이와 심리·사회적 적응 과정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종단연구 데이터이다. 2019년(1차년도) 당시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 및 그 보호자를 원표본으로 구축하였으며, 매년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진로 탐색 및 심리적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점을 분석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수행된 6차년도(2024년) 청소년 데이터를 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6차년도 조사는 패널들이 중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시기에 진행되었으며, 이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의 원표본 사례수는 총 1,773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예: 학업중단 위험요인, 우울, 부모의 지지 등)에 무응답이나 결측치가 포함된 사례를 데이터 정제 과정을 통해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1765명의 데이터를 실증 분석에 활용하였다.

3.2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부모지지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 청소년이 인식하는 학업중단 위험요인을 독립변수로, 심리적 웰니스를 위협하는 내재화 문제인 우울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이 두 변인의 관계를 완충할 것으로 가정되는 부모지지를 조절변수로 투입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의 외생적 영향을 통제하여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청소년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 가족형태,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연구 모

형은 Hayes[19]의 PROCESS Macro Model 1에 기반하여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모형 도식은 [Figure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3 측정구

3.3.1 독립변수: 학업중단 위험요인 (Dropout Risk Factors)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요인 중 '부정적 생활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자영 외[20]가 개발한 학업중단 위기 척도를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학교생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성실한 태도와 학업 이탈의 징후를 평가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총 0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항목으로는 '지각이나 조퇴, 무단결석을 자주 한다', '수업 시간에 었드려 잔다', '숙제나 준비물을 잘 챙기지 않는다', '학교 규율을 잘 지키지 않는다' 등이 포함된다. 모든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를 적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평정 범위로 측정하였다. 학업중단 위험요인 점수는 개별 문항의 총합으로 산출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하고 학업중단 위험 수준이 높다는 뜻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학업중단 위험요인(생활태도)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02로 확인되었다.

3.3.2 종속변수: 우울 (Depression)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하형석 외[21])'에서 사용된 우울 척도를 활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의 우울 하위요인을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한 것으로,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나는 기운이 없다', '나는 불행하거나 우울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매사

에 흥미가 없다', '나는 울고 싶을 때가 많다', '나는 외롭다고 느낀다'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우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98로 확인되었다.

3.3.3 조절변수: 부모의 지지 (Parental Support)

본 연구에서는 학업 관련 사회적 지지 척도를 김순규[22]가 수정·보완한 부모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청소년의 정서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총 6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항목으로는 '부모님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주신다', '부모님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신다', '부모님은 고등학교 혹은 대학에 진학하도록 격려해주신다',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다', '부모님은 수업이나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말을 많이 해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물건, 장소 등)을 잘 제공해주신다' 등이 포함된다. 응답은 4점 Likert 척도를 기반으로 측정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을 시작으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범위로 구성된다. 부모지지의 점수는 개별 문항의 총합으로 산출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지지 수준이 높다는 뜻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부모지지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74로 확인되었다.

3.3.4 통제변수 (Covariates)

종속변수인 우울에 미칠 수 있는 외생적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청소년의 성별(1=남자, 2=여자), 연령(만 나이), 거주지역, 가족형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3.4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에는 SPSS 29.0 프로그램이 이용되었고, 구체적인 분석 단계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각 주요 변수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측정도구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각각 실시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확인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학업중단 위험요인, 부모지지,

우울)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진행하였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부모지지가 조절효과를 갖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Hayes[19]의 PROCESS Macro(Model 1) 모형을 활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기울기 검증(Simple slope test)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최종 분석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는 총 1,765명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911명(51.6%), 여성이 854명(48.4%)으로 남성 청소년의 비율이 근소하게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유사한 수준의 성비를 보였다. 연령별 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세 청소년이 1,660명(94.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16세(74명, 4.2%), 14세(18명, 1.0%), 17세(11명, 0.6%), 18세(2명, 0.1%) 순으로 집계되어, 전체 연구 대상이 주로 15세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였다.

다음으로, 대상자의 환경적 특성으로서 거주지역과 부모님 결혼상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주지역은 경기 및 인천을 포함한 경인권 거주자가 493명(27.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경상권 450명(25.5%), 전라 및 제주권 320명(18.1%), 충청 및 강원권 318명(18.0%), 서울 184명(10.4%) 순으로 분포하였다. 이는 수도권(서울 및 경기) 거주 비율이 전체의 약 38.3%를 차지함과 동시에, 비수도권 권역에도 대상자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여 전국 단위의 표본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결혼상태는 '결혼(유지)' 상태가 1,519명(86.1%)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혼' 160명(9.1%), '사별' 66명(3.7%), '별거' 18명(1.0%), '동거' 2명(0.1%) 등 부모의 혼인 중단 및 비전형적 결합 상태를 보고한 비율이 도합 약 13.9%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

상 청소년 중 일부가 가족 구조의 변화를 경험하였거나 다양한 형태의 가구 환경에 속해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N=1,765)

Variable	Classification	%
Gender	Male	911 51.6
	Female	854 48.4
Age	14	18 1.0
	15	1660 94.1
	16	74 4.2
	17	11 .6
	18	2 .1
Region of Residence	Seoul	184 10.4
	Gyeongin (Gyeonggi + Incheon)	493 27.9
	Chungcheong & Gangwon Region	318 18.0
	Gyeongsang Region	450 25.5
	Jeolla & Jeju Region	320 18.1
Parental Marital Status	Married	1519 86.1
	Divorced	160 9.1
	Separated	18 1.0
	Widowed / Bereaved	66 3.7
	Cohabiting	2 .1

4.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인 학업중단 위험요인, 우울, 부모지지의 전반적인 수준과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 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Cronbach's α)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첫째, 종속변수(혹은 주요 매개/독립변수)인 '학업중단 위험요인'은 최소값 8.00, 최대값 27.00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은 14.22(SD=3.27)로 나타났다. 해당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는 .702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우울' 변수의 경우 최소값 5.00, 최대값 20.00의 범위를 가졌으며, 평균 7.87, 표준편차 2.95로 확인되었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98로 나타나 매우 높은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셋째, '부모지지' 변수는 최소값 6.00, 최대값 24.00의 범위를 보였고, 평균은 19.46, 표준편차는 2.91로 나타났다. 해당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 역시 .874로 도출되어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주요 변수의

신뢰도 계수가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치인 .7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이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신뢰성을 갖추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Key Variables

Variable	Min	Max	M(SD)	Standard Deviation	Reliability (Cronbach's α)
Academic Dropout Risk Factors	8.00	27.00	14.2164	3.27269	.702
Depression	5.00	20.00	7.8737	2.94515	.898
Parental Support	6.00	24.00	19.4561	2.91332	.874

본 연구의 가설 검증에 앞서 주요 변수인 학업중단 위험요인, 우울, 부모지지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 연구에 포함된 모든 주요 변수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1$). 구체적인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 위험요인과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r = .348, p < .01$)를 나타냈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중단 위험요인 또한 높아짐을 의미한다. 둘째, 학업중단 위험요인과 부모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r = -.227, p < .01$)를 보였다. 즉, 부모로부터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업중단 위험요인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우울과 부모지지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r = -.370, p < .01$)를 나타냈다. 이는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낮아짐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수 절댓값이 .227에서 .370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의심하는 기준인 .70(또는 .80)을 넘지 않는 수치이므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성이 과도하게 높지 않아 추후 회귀분석 등의 가설 검증을 수행하는 데 통계적인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Correlations Among Key Variables

Variable	Academic Dropout Risk Factors	Depression	Parental Support
Academic Dropout Risk Factors	1		
Depression	.348**	1	
Parental Support	-.227**	-.370**	1

* $p < .05$, ** $p < .01$, *** $p < .001$

4.3 부모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Model 1)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Results of the Moderating Effect Analysis of Parental Support

Category	Variable	B	SE	t
Control Variables	Gender	.214	.125	1.716
	Age	-.300	.213	-1.406
	Region of Residence	0.171	.049	3.477
	Family Structure	-.159	.100	-1.597
	Monthly Average Income	-.001	.000	-3.039
Main Effects	Academic Dropout Risk Factors (X)	.574	.114	5.020
	Parental Support (W)	-.049	.089	-.555
Interaction	X × W	-.018	.006	-2.973
F		63.833***		
R^2		.225		
ΔR^2		.004		

* $p < .05$, ** $p < .01$, *** $p < .001$

본 분석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가족 형태, 월 평균소득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먼저,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전체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 = 63.833, p < .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R^2)는 .225

로 종속변수 총 변량의 22.5%를 설명하고 있다. 변수들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거주 지역($t = 3.477$)과 월 평균소득($t = -3.039$)이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학업중단 위험요인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방향으로 나타났다($B = .574, t = 5.020$). 이는 학업중단 위험요인 수준이 높을수록 종속변수인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반면, 조절변수인 부모지지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B = -.049, t = -.555$). 가장 핵심이 되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학업중단 위험요인 X 부모의 지지)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B = -.018, t = -2.973$)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호작용항의 추가 투입에 따른 설명력의 증가량은 .004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한 부(-)의 값을 가진다는 것은, 부모지지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업중단 위험요인이 우울을 증가시키는 정(+)의 영향력을 완충(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업중단 위험요인이 청소년의 우울을 가중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더라도, 부모의 지지가 높을 경우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약화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부모지지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4.4 부모지지 수준에 따른 조건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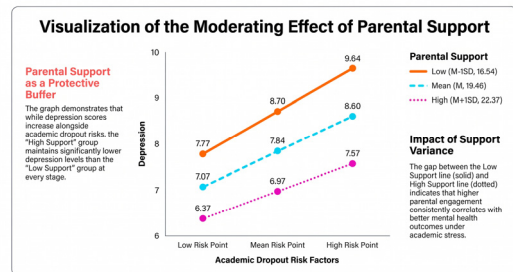
앞서 확인된 학업중단 위험요인과 부모지지의 상호작용 효과가 부모지지의 구체적인 수준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순기울기 검증(Simple Slop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조절변수인 부모지지의 평균을 기준으로 1 표준편차 낮은 수준(-1SD), 평균 수준(Mean), 1 표준편차 높은 수준(+1SD)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조건부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 결과, 부모지지의 모든 수준(-1SD, Mean, +1SD)에서 학업중단 위험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정(+)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구체적인 효과 크기를 살펴보면, 부모지지 수준이 낮은 집단(-1SD)에서의 조건부 효과(Effect)가 .286($t=11.400$)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지지 수준이 평균인 집단(Mean)에서는 효과 크기가 .235($t=11.934$)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부모지지 수준이 높은 집단(+1SD)에서는 .184($t=6.79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학업중단 위험요인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증가하지만, 그 영향력의 크기는 부모지지가 높은 집단

일수록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지지는 학업중단 위험요인이 청소년의 우울을 가중시키는 궤적에 개입하여, 그 부정적인 타격을 유의미하게 약화시키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이자 완충 역할을 수행함이 최종적으로 검증되었다.

<Table 5> Conditional Effects of Academic Dropout Risk Factors on Depression According to Parental Support Levels

Level	Effect	SE	t	p
-1SD	.286	.025	11.400	< .001***
Mean	.235	.020	11.934	< .001***
+1SD	.184	.027	6.798	< .001***

* $p < .05$, ** $p < .01$, *** $p < .001$



[Fig. 2] Visualiz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al Support

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부모지지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청소년의 심리적 웰니스를 증진하기 위한 실천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SPSS PROCESS Macro(Model 1)를 활용하여 분석한 주요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5.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첫째, 청소년의 학업중단 위험요인인 부정적 생활태도는 우울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기력하거나 불규칙한 생활태도가 지속될 경우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과 내재화 문제로 직결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청소년기의 비협조적이거나 일탈적인 생활태도는 단순한 사춘기의 반항이 아니라, 학업 및 환경적 스

트레스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방식이자 심리적 고통의 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라는 핵심 사회화 기관에서 멀어질 위기에 처한 청소년은 사회적 소속감과 자아존중감을 상실하기 쉬우며, 이는 궁극적으로 깊은 우울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5].

둘째, 부모지지는 학업중단 위험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완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진부 효과 분석 결과, 부모지지의 수준이 높아 질수록 학업중단 위험요인이 우울을 가중시키는 악영향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요인이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경감시킨다는 Cohen과 Wills[17]의 스트레스 완충 가설(Stress-Buffering Hypothesis)을 명확히 입증하는 결과이다. 또한, 학업이나 환경적 위기 상황에서도 부모의 따뜻한 정서적 지지와 긍정적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적 방어막으로 작용한다는 맥락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전인적 웰니스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학교 현장 및 지역사회 내 '조기 발견 및 밀착 개입 시스템'의 구축이다. 학업중단 위험요인인 부정적 생활태도는 단기간에 교정되기 어려우며, 방치할 경우 심각한 우울로 이어지는 초기 신호이다. 따라서 교사, 학교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는 학생들의 결석, 지각, 무기력한 태도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해야 한다. 특히 언어적·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학교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학업 이탈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문화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경우, 이들의 생활태도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멘토링과 문화적 감수성을 반영한 상담 프로그램이 선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 개입 패러다임의 '가족 중심(Family-centered)' 전환과 부모교육의 의무화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지지가 우울로 향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강력한 보호요인임이 입증되었다. 이는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에 대한 개입을 넘어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지자체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은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자녀에게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어려운 취약 가정을 발굴하여, 찾아가는 부모 상담 및 부모-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16].

셋째, '웰니스 관점'에 입각한 다체계적 예방 정책의 수립이다. 기존의 학업중단 정책이 주로 '학교 복귀'나 '학

력 취득' 등 결과 중심의 결핍 모델(Deficit model)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감성 회복을 우선시하는 웰니스 모델(Wellness model)로 전환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학업적 성취에만 매몰되지 않고, 예체능, 여가,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청소년 패널 데이터 등 양적 자료를 바탕으로 변인 간의 관계를 실증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자기보고식 설문에 의존하여 응답의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특정 시점의 횡단적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므로 변인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단정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위험요인과 우울의 발달적 궤적을 추적하는 종단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부모지지 외에도 교사 지지, 또래 지지 등 학교 체계 내의 다양한 보호요인을 추가로 투입한 다중 조절모형 검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J.M.Lee, "The effects of ego-identity and school adjustment on depression in adolesc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8, No.4, pp.1593-1603, 2007.
- [2] H.S.Jeon, "Factors affecting school maladjustment of adolescents with dropout intention," Forum for Youth Culture, Vol.72, pp.139-170, 2022.
- [3] Ministry of Education, "2024 Basic Educational Statistics Survey Results," Ministry of Education Press Release, 2024.
- [4] M.S.Kim and S.K.Ha, "The effect of career barriers on career attitude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Welfare Counseling Education, Vol.11, No.1, pp.81-107, 2022.
- [5] B.S.Park, "The impact of social stigma on depression among school dropout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62, pp.81-106, 2019.
- [6] E.M.Yeon and H.S.Choi, "Concurrent and delayed effects of individual, parent, and school variables on changes in academic dropout risk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5, pp.77-90, 2022.
- [7] J.S.Park, "The effect of social stigma on depression in out-of-school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 parental support and ego-resilience," *Convergence Humanities*, Vol.8, No.4, pp.95-122, 2020.
- [8] P.S.Noh and B.G.Park,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support, neglect, and thoughts about the future among out-of-school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30, No.10, pp.443-464, 2023.
- [9] K.A.Ham, B.H.Byun, and S.M.Che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gratitude disposi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moder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strategie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2, No.6, pp.2163-2176, 2011.
- [10] J.D.Finn, "Withdrawing from school,"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59, No.2, pp.117-142, 1989.
- [11] Y.A.Ah and S.H.Park, "A path analysis among adolescents' intention of academic dropout and influencing factor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44, pp.75-97, 2018.
- [12] D.S.Jung and J.A.Baek, "The effect of bicultural acceptance on dropout intention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21, No.6, pp.23-35, 2023.
- [13] S.E.Lee, E.J.Lee, and O.K.Ham, "The impact of attitudes toward suicide, perception of life, and depression on adolescent suicid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2, No.7, pp.305-315, 2021.
- [14] R.Agnew,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Vol.30, No.1, pp.47-88, 1992.
- [15] K.I.Choi, "The mediating effect of self-protective facto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GRI Review*, Vol.14, No.3, pp.171-190, 2012.
- [16] E.J.Kim and Y.J.Kim,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depression in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supervision,"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Vol.10, No.3, pp.359-370, 2024.
- [17] S.Cohen and T.A.Wills,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98, No.2, pp.310-357, 1985.
- [18] H.Y.Baek, "The effects of poverty on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parental depression and intra-family social capital: A multi-group analysi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38, pp.47-74, 2017.
- [19] A.F.Hay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3rd ed.), Guilford Press, 2022.
- [20] J.Y.Lee, S.Y.Kang, H.J.Kim, Y.Y.Lee, and E.J.Yang, "Exploring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f school dropout perceived by adolescents in dropout crisis,"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18, No.2, pp.225-241, 2010.
- [21] H.S.Ha, J.K.Kim, S.H.Baek, and G.W.Jin,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 User Guid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8.
- [22] S.G.Kim, "Determinants of school dropout among adolescents: Focusing on rural areas,"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01.

최 장 원(Jang-Won Choi)

[종신회원]



- 2005년 2월 : Georgia College & State University MBA 졸업
- 2008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10년 4월 : 덕인복지재단 대표이사

- 2010년 9월 :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 교수
- 2016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2016년 4월 :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
- 2022년 3월 ~ 현재 : 동명대학교 복지경영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실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서 동 현(Donghyun Seo)

[정회원]



- 2025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 2026년 현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관심분야>

청소년복지, 다문화 청소년복지